'달리는 국민신문고' 10월 31일 무주군 찾아온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용회복위원회 생활 고충 민원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오는 10월 31일 무주를 찾아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복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협업 기관의 전문 상담 인력이 무주상상반디숲 다목적실에서 무주군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복지와 △신용회복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고충 상담과 권익 구제를 위한 해결책이 공유되는 현장형 민원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은 1차 무주군청 소관부서에 이관되며, 2차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군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뜻깊은 자리"라며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상담이 진행되는 만큼 많은 분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을맞이 무주반딧불시장 야시장이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무주반딧불시장 원형 광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장보기를 통해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10만 원 구매 시 2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 해주는 '열심히 장보기'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김서주 기자

광주 동구랑페이, 발행 한 달만에 28억원 돌파해

충장축제 페이백 이벤트 화제, 11월 2차 진행 예정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9월 22일 발행을 시작한 동구 지역화폐인 '광주동구랑페이'가 총 발행 규모 50억 원 중 28억 원 이상이 판매되면서 56%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광주동구랑페이는 발행 첫날에만 1억 5천만 원 이상이 판매됐고, 이후 매주 판매고를 경신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기간에 광주동구랑페이로 당일 10만 원 이상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원을 되돌려주는 이벤트도 열려 시민들의 관심을 얻었다.

이 이벤트는 많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광주동구랑페이와 가맹점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광주동구랑페이의 가맹점 수는 현재 2839곳이 승인완료 됐으며, 승인 심사 대기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총 3,160개로, 모집 목표(5,000개)의 63%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던 소비를 지역 안으로 끌어들여 이용자와 상인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로써 동구는 지역화폐의 사용 촉진과 함께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는 평가다.

임택 동구청장은 "내년에는 광주동구랑페이가 정책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동구랑페이'는 광주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선불형 지역화폐다. 18%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며 사용기한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다.

한편, 동구는 관내 애플B 유치원 소속 원아 129명을 대상으로 최근 '2025 탄소중립 실천 학교'를 운영했다.

지난 6월 시작한 이번 실천 학교는 11월까지 총 3차시 교육으로 진행된다. ▲편백나무를 통한 나무의 중요성 교육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교육 ▲우유팩 분리수거 순서 교육 후 화장지로 교체 등 실천 중심으로 운영한다.

손권일 기자

'2025 고흥 우주항공산업 비즈페스타' 개최했다

고흥군은 지난 22일 소노캄 고양에서 전남도와 고흥군이 공동 주관한 「2025 고흥 우주항공산업 비즈 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 및 드론 관련 기업·협회, 연구기관, 투자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의 미래산업 비전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투자 환경을 널리 알리는 등 관련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우주·항공(드론, UAM)관련 20개사 기업·협회와 업무·투자협약(MOU)및 입주협약을 체결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등 산업거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기반을 확고히 했다. 특히, 전남도의 투자 제안 발표에 이어 기조 강연에서는 FineVT 로보틱스 연구소 오세진 소장, SKYPORTS 한국지사 Mitchell Williams 지사장, 국방융합기술연구소 양현상 소장, NH증권 이재광 수석 연구원 등 산업 전문가들이 고흥의 우주항공산업 성장 잠재력과 미래전략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비즈 페스타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고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항공우주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1월 중에는 광주·전남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이 「고흥문화재단」 설립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군은 10월 1일 열린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설립 동의'를 받았으며, 그 결과가 지난 21일 통보됨에 따라 재단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법인 설립을 목표로, 협의 결과 공개와 조례 제정 본회의 통과, 발기인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정관·사업계획(안) 수립, 이사회 구성, 설립허가 신청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우덕현 기자

고창 천일염, 코스트코 납품 소비자 만난다

고창군의 청정 갯벌에서 생산된 '고창 천만금 천일염'이 회원제 유통기업 코스트코(Costco)의 전국 20개 매장에 공식 입점했다.

이를 기념해 지난 22일 해리농협 천일염가공사업소에서 '코스트코 입점 기념식'이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 안찬우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부본부장, 김갑선 해리농협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창 천일염의 전국 유통망 진출을 축하했다.

코스트코 입점 품목은 '고창 구운소금(800g×2개입)'과 '해리농협 탈수 천일염(5kg)'이다. '고창 구운소금'은 약알칼리성 소금으로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며, '탈수 천일염'은 간수를 제거해 쓴맛을 줄이고 미네랄을 풍부하게 유지해 풍미를 살린 제품이다.

코스트코 입점은 해리농협이 수년간 추진해 온 품질 혁신과 브랜드 신뢰 구축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해리농협 천일염가공사업소는 현대화된 가공설비와 철저한 위생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천일염의 가공·포장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갑선 해리농협 조합장은 "고창의 청정 갯벌과 해리농협 임직원들의 정성이 모여, 고창 천일염이 코스트코 전국 매장에서 소비자와 만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소금'이라는 자부심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천일염의 품질과 전통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정 갯벌, 건강한 먹거리'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화와 유통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리농협 천일염가공사업소는 이재명 대통령 추석선물 납품, 프리미엄 선물세트 출시 등을 통해 고창 천일염의 브랜드가치를 꾸준히 높여왔다. 이번 코스트코 입점을 계기로 국내 프리미엄 시장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재)고창군장학재단이 심덕섭 고창군수 등 이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지역인재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신규사업(1인 1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승인(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영임 기자

전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출범!

' AI산업 대전환 본격 시동' 윤석진 前 KIST 원장 등 국내 최고 전문가 참여했다

전북 지역의 본격적인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전북자치도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前 원장 등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위원이 함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이 위원회는 AI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등 도의 핵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회의에서는 전북 인공지능 산업 추진 현황과 AI산업 생태계 조성 기본방향이 공유됐다.

전북연구원이 마련한 'AI산업 생태계 조성 기본방향' 바탕으로 피지컬 AI 산업 육성, 농생명·모빌리티 등 주력 산업과 융합한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이 제시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윤석진 前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부위원장은 원광대학교 강선경 교수가 선임됐다. 아울러 산업·연구·교육·정책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가 정책과 지역 전략을 잇는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인 윤 위원장은 전북의 산업구조와 국가 AI 정책을 연계해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정례 및 수시 자문회의를 통해 AI 인프라 확충,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실질적 정책을 펼치고,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전북을 대한민국 AI 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인공지능은 산업의 효율을 넘어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라며 "피지컬AI 사업을 시작으로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 인재 확보로 이어지는 전북형 AI 생태계를 만들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이 국가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진 위원장은 "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가 AI 발전 전략과 연계되는 산업 전환 방향을 이끌어 내고, 지방의 AI 거점을 넘어 국가 AI 혁신의 전초기지로 자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은 APEC 정상회의 기간 긴급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전 소방관서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주요 간부를 비롯해 전 직원이 비상응소 태세를 유지하고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소방장비를 100% 가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 초기에는 가용 소방력을 전면 투입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서장 중심의 지휘체계를 강화해 인명 구조 최우선 원칙에 따라 현장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경북 지역으로 전북의 소방차량 4대, 인원 22명이 투입됨에 따라, 출동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관서 당직을 강화하는 등 상황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오숙 본부장은 "도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한다!

토목공사는 이미 완료, 수목 식재와 경관조명이 설치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노암동 산13번지 일원에 위치한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주제정원과 산책로,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식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목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하반기에는 겹벚나무, 에메랄드그린, 홍매화 등 다양한 수목 식재와 함께 특히 야간에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이용객들에게 낮과는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올해 사업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부터는 함파우 지방정원 본격 개방과 함께 2025년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등 다양한 녹지 공간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함파우 지방정원은 주변 시설과의 조화를 통해 향후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함파우 지방정원이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관내 자전거도로에 대해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간선도로 11개 노선과 생활권도로 29개 노선으로 총 41개 노선, 약 77km가 대상이다.

신승민 기자

완주 '구이 수상레저단지' 준공 수상관광 메카로

완주군이 23일 구이저수지 일원에서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준공식'을 열고, 관광·레저 거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9년 대장정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9년간 추진된 장기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 146억 원(균특 7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124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준공으로 구이면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수상레포츠와 안전교육, 여가활동이 결합된 복합형 관광 거점을 갖추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상레포츠안전센터와 7,729㎡ 규모의 수변공원이 새롭게 조성됐다.

수상레포츠안전센터는 연면적 499㎡,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외부에는 계류시설·공원형 편의공간·12면 주차장이 마련됐다. 1층에는 장비보관창고·탈의실·샤워실 등 편의시설, 2층에는 다목적 교육실·라운지·사무실이 들어서 체험과 교육, 휴식을 모두 아우르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운영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며, 카누·카약·패들보드 등 다양한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전문 안전교육 과정이 마련된다. 군은 이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기고 배우는 체험형 레저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는 단순한 체험시설을 넘어 안전과 교육, 관광을 함께 아우르는 복합공간"이라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기고 배우는 수상레포츠 명소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홍기 완주수소연구원 원장이 23일 일자리·산업·경제분야의 완주군 '1일 군수'로 위촉됐다. 이홍기 원장은 위촉패 수여, 보안서약서 작성, 문서 결재를 시작으로 군정 전반의 현황과 관심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행정을 체험했다.

이상호 기자